

“제주관광, 온·오프라인 결합해 고객 니즈 맞춰야”

제주상의 115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서 이승윤 교수 강조

제주관광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공간을 결합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가 주최하고, 제주도·제주도개발공사·제주농협·제주은행이 후원하는 ‘제115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이 15일 제주상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강좌로 열렸다(사진).

랜선을 통해 도내 상공인들을 만난 이승윤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마케팅’을 주제로 강연하고 “최근 마케팅의 주요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혁신을 만들어어나가고 있는 선도적 기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대

응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업의 시장구조가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상위권 기업들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서 새롭게 조직 혁신을 하지 않으면 기업을 존속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업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절히 접목해 고객 라이프 스타일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를 기반으로 이상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아마존이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이유는 온라인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기 위한이지만 그들의 오프라인 매장은 기존 매장과는 전혀 다른 무인으로 운영되는 줄을



설 필요가 없는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제주에서도 이러한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해녀의 부엌’과 ‘사계생활’을 예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제주관광이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공간을 적절히 결합해 제주만의 가치를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제주 분양경기 회복세...기대감 솔솔

주택연구원, 분양경기실사지수 전망치 77.7로 전월비 15.2P 상승

지난달 실적치도 33.3P 올라

제주지역 주택 분양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모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5일 발표한 전국 시도별 분양경기실사지수(HSSI)에 따르면 이번달 제주지역 HSSI 전망치는 77.7로 전월(62.5) 대비 15.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여전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이지만 전월과 비교해 눈에 띄게 오르면서 주택 분양시장에 대한 높아진 기대감을 나타냈다.

HSSI는 사업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급시장 지표로, HSSI 지수가 기준치(100)를 초과하면 분양 전망

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뜻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난달 제주지역 HSSI 실적치는 83.3으로 전월(50.0)과 비교해 무려 33.3포인트 상승했다.

제주지역 주택사업자의 11월 체감경기감도 ‘-20.8’을 기록,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HSSI 상승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돼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강화 기조와 코로나19 등으로 적체됐던 물량의 분양이 12월로 예정되자 사업적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연례보고서 ‘제주농업을 리디자인하다’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발간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는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례보고서 ‘제주농업을 Re:Design 하다’는 6차산업의 이해를 돕는 소개를 시작으로 ‘숫자로 보는 2020’, ‘주요 사업 소개’, ‘사람, 그리고 삶 인터뷰’ 등으로 구성됐다.

‘6차산업을 마주하다’는 ▲6차산업의 이해 ▲센터 소개 ▲숫자로 보는 2020 등이 수록됐다.

숫자로 보는 2020은 올해 진행된 인증평가와 사후관리, 현장코칭과 전문상담, 월별 타임라인 등이 기재돼 한 해 동안 진행된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됐다.

‘6차산업을 들여다보다’는 인증사업자 혜택 및 지원 내역 등 인증평가와 사후관리를 시작으로 지난달 성황리에 진행된 ‘제2회 6차산업제주국제박람회’와 6차산업 인증사업체 제품 ‘온라인 체험단 운영’ 실적 등 제주 6차센터가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이 소개된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따른 다각도 사업 변화 노력으로 ▲1대1 설명 및 안내를 위한 QR 코드 상담신청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제주6차산업 제품 온라인체험단 ▲관측전 드라이브 스루 행사 등을 보여준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제주은행이 따뜻한 금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제주은행, 2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보건복지부·사회복지협, 선정

제주은행은 따뜻한 금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은행은 올해 초 코로나19 여파로 큰 충격을 받은 제주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9000억원에 가까운 금융지원과 함께 ‘착한 임대료 운동’에도 적극 동참했다. 또 임직

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억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930만원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도교육청을 방문해 제주지역 학생들을 위한 긴급 생계비 4500만원도 기탁했다. 아울러 제주은행은 제주 경제·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최초 모바일 관광 플랫폼인 ‘제주지니’ 앱을 개발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홍보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서천주 제주은행장은 “제주은행은 제주와 상생하는 지역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신협 대출 영업 범위 확장...비조합원 규제 완화

금융위, 개정안 통과...내년 시행

내년부터 지역 신협이 다른 지역 고객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는 등 대출 영업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을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눠 비(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지역 신협이 경남이나 울산에 사는 고객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지역 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하에서만 비조합원에게 대출해

줄 수 있었다.

공동유대(같은 시·군·구)에 속할 때만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를 넘어 다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데 일정 정도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합원이 아니라도 같은 권역에 속하면 ‘3분의 1 이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해줄 수 있다.

또 신협 등은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취급 시 사전심사·취급 후 사후관리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 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거나 신협의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수놓음 온라인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제주 서부권 수놓음 마을행복센터 사업단은 올해 페스티벌을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

수놓음 온라인 페스티벌에는 수놓음 사업 소개, 수놓음 마을의 장터, 공모전 등이 운영됐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마을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향후 페스티벌 가능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온라인 페스티벌의 특성을 살려 SNS를 활용한 좋아요·친구추천·초성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일반인 참여를 늘리고 수놓음 사업을 홍보해 전년 대비 방문자 수는 500%, 페이지뷰는 600% 각각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번 페스티벌은 사업에 참여하는 서부권 4개 마을(구역리·서광서리·저지리·협재리)을 널리 알리면서 직접 기획하고 생산한 제품을 홍보하는 등 마을의 이익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CO-ZERO

친환경 이끼제거제

에코제로



감귤은 우리가 지킨다!!!

단 1회 살포로 이끼제거 효과!



살포직후



3일경과



8일경과

97% 이끼제거

→ 과실 품질 향상에 도움

→ 당도 및 색상 향상에 도움

→ 상품성 향상에 도움

☞ 에코제로 500ml(1병)를 물 100L에 넣고 혼합 후 이끼발생 부위에 집중적으로 분무 살포

- 단 1회 살포로 이끼제거 효과 발생(2,3일 후~)

- 확실한 효과를 위해 희석비율 200배 권장

생산성 증대!!



[주] 에코레스트

Organic partner-ECOREST CO.,LTD

제품상담문의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T.062-571-2110